

전문통역사 머릿속 사전의 구조 - 통합어에 대한 경험연구 - *

정혜연
(한국외대)

1. 들어가며

우리의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가 저장된 하나의 심리적 시스템이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어떤 단어를 자주 쓰면 쓸수록 잘 기억되어 떠올리기가 쉬워지고, 다른 단어와 함께 자주 쓰게 되면 이 두 단어의 연결이 강해진다(예: 사과-먹다, apple-사과).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단어 간의 연결을 만들면 머릿속 사전은 네트워크를 이루며 확장해가고, 구조가 변하기도 한다(에이치슨 Aitchison 2004)¹⁾.

* 이 연구는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이러한 머릿속 사전 이론은 심리학 뿐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어휘를 익힐 때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 자극의 강도가 역치를 넘어서면 신경세포에 새로운 돌기가 자라면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될 조건을 갖추게 된다(켄들 Kandel 2009). 이렇듯 머릿속 사전의 형성과 변화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물

실제 언어사용이 다른 이중언어자와 단일언어자는 머릿속 사전의 크기와 구조도 각각 다르다고 한다(파블렌코 Pavlenko 2009). 이러한 이중언어자 중에서도 통역사는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직업의 특징상 언어사용에 독특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빠르게 의미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맞는 필요한 어휘를 신속하게 인출해야 하며 언어전환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은 다른 이중언어자와 어떻게 다를까?

본고는 이중언어자에게서 보다 특화된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머릿속 사전구조에는 크게 계열어(paradigmatic)와 통합어(syntagmatic) 연결구조가 있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도 통합적 연결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합어의 반대 개념인 계열어에 관련된 연구는 통역연구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계열어 중에서도 동의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통역사의 적성, 통역능력과 관련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기 때문이다(거버 & 롱글리 & 롱 & 램베르 Gerver & Longley & Long & Lambert 1989, 쿠르츠 Kurz 1996, 루소 Russo 2014). 그러나 이렇듯 활발한 계열어 연구에 비해 통합어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용어구의 번역 등에 관한 연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번역의 용례 차원의 연구이고, 통역, 그것도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 내 통합어의 연결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열어 뿐 아니라 통합적 연결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열어 능력이 통역에서 이해와 표현의 순발력과 관련이 있다면 통합어 능력은 이해와 표현의 정확성, 적합성과 연관이 있다. 문장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섬세한 이해가 가능하고, 언어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통합어 연결 구조의 성격과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2장에서 다양한 언어학 이론에서 통합적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 중 이중언어자의 통합어 연결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본다. 4장에서는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통역사 머릿

질적 근거도 갖춘 언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속 사전 내 통합적 어휘연결 구조가 어떠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통역 경험에 차이가 있는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머릿속 사전 내 통합어 구조, 성격을 실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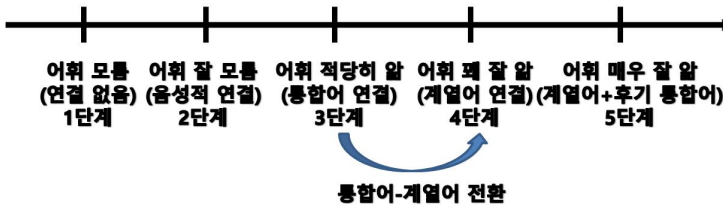
2. 통합어 구조

통합어(syntagma)란 말에서 차례로 배열되어 구, 절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일컫는 개념으로, 연립어(김중도 2002:31), 연사어(소쉬르 Saussure 저, 최승언 역, 2010:170)라고도 번역된다. 흔히 언어학습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익히는 언어(collocation), 관용어, 숙어 등도 모두 어휘의 통합적 연결구조 중 하나이다. 품사가 같은 어휘, 그래서 한 문맥에서 대체 가능한 관계의 어휘라고 정의되는 계열어(혹은 계열어, 연합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통합어 어휘집단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정부가 주도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라는 문장에서 의미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연결관계로 배열된 ‘그 사람은(주절의 주어)’, ‘정부가(관형절의 주어)’, ‘주도하는(관형절의 서술어)’, ‘봉사활동에(관형절의 목적어)’, ‘참여했다(주절의 서술어)’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연계는 우리 머릿속 사전의 한 축을 이룬다. 머릿속 사전은 인쇄사전과는 달리 알파벳/가나다 순이 아니라 어휘 간의 관계에 따라 배열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한 어휘가 여러 가지 관계(예: 에이치슨, 2004은 등위, 동의, 배열, 상위관계)로 다른 어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관계 중에서도 자주 대비되는 관계가 계열적 연결구조와 통합적 연결구조이다. 그 이유는 이 두 연결구조가 언어습득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사과’라는 단어에 ‘쥬’, ‘떡어’라는 통합어를 떠올리다가 차츰 나이가 들면서 ‘배’, ‘꿀’ 등의 계열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언어습득자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통합어-계열어의 전환(syntagmatic-paradigmatic shift)’이라고 부른다(어빈 Ervin, 1961). 최근의 이론(나메이 Namei, 2004; 니슨 & 헨릭슨 Nissen & Henriksen, 2006)에 따르면 이러한 어휘의 통합어-계열어 전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즉, 어떤 어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처음에는 통합어를 떠올리다가 차차 계열어 연상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합어-계열어 전환은 언어체계 전체에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마다 시기 차이를 두고 찾아온다. 이렇게 많은 어휘가 통합어-계열어 전환을 거치고 나면, 계열어 연결이 넓은 어휘영역에 걸쳐 오랫동안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계열어 강세 현상은 다양한 어휘 연상 실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에이치슨(2004)에서는 뇌손상을 입은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다른 어휘 관계는 손상이 되었지만 사과-배, 기차-자동차 등의 등위어 연결²⁾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연령별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휘 반응 실험을 통해 등위어 연결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청년집단과 노인 집단 모두 등위어 인식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해당 어휘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 계열어와 함께 다시 통합어 연계가 강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나메이(2004)의 연상 실험에서는 언어 최상위 단계의 피험자가 외국어, 모국어 모두에서 계열어와 함께 통합어를 연상어로 제시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후기 통합적 연계(late syntagmatic)’라고 하였다.

〈그림1〉 어휘습득에 따른 연상어 변화 (나메이 2004 변형)



어휘의 통합적 연결이 어떠한 성격을 갖기에 언어습득의 초기와 최상위 단계에 각각 두드러지게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언어습득 초기의 통합어 강세현상은 아동들이 언어를 주로 덩어리로 습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맛있는 사과 먹자’, ‘밤이니까 자야지’ 등 성인들의 언어를 분석없이 덩어리로 익히면서 어휘의 통합적 연결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2) co-ordinate: 세밀함의 정도가 같은 어휘로 계열어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언어습득 최상위 단계에서의 통합어 강제 현상도 원칙적으로는 언어습득 초기 단계 현상, 즉 어휘의 덩어리 단위 습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습득의 중간 단계에서 계열어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이 그 어휘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에 의미적으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예: 사과, 배, 꿀은 ‘과일’의 범주에 속한다), 후기 통합어 강화 현상은 어휘를 다시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접하고 사용하면서, 새로운 문맥에서 다시 덩어리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휘의 횡적 연결은 그 조합으로 이뤄진 문장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어휘의 문법적 결합을 영상, 즉 하나의 상황으로 이해하려 했던 랭개커(Langacker 1987)도 어휘의 결합이 하나의 영상을 이룬다면, 그 결합의 표층적 배열 구조에 따라 그 영상의 부각되는 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어휘의 횡적 결합, 즉 통합적 결합을 영상화의 초점 조절의 수단 중(김종도 2002:52-57, 89-91) 하나로 보았다. 즉, 사진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진에서 부각되는 부분이 달라보이듯이, 문장이라는 덩어리가 표현하는 심층적 영상에서 표층 차원의 어휘 배열(통합적 구조)에 따라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통합어 구조는 언어의 덩어리 습득과 관련되어 있고, 언어의 표층적 이해 및 산출에 관여한다. 계열어 구조가 언어의 심층적 의미 이해와 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이는 계열어와 통합어 연결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열어와 통합어 구조는 머릿속 사전이라는 대규모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언어의 이해와 산출에 함께 관여한다. 인지문법에서 의미부와 통사부를 어휘부→형태부→통사부로 이루어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연속선(continuum)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 이중언어자의 통합어 구조

언어학습자가 기존 언어에 새로운 언어를 추가적으로 익히게 될 경우, 머릿속 사전의 크기와 성격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중 여기서는 통합적 연결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L2 언어수준이 높아지면서 L2에서도 L1과 같은 통합어-계열어 전환이 일어난다. 이는 원어민, 고급학습자가 중급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계열어 연상어를 생산했다는 자레바와 월터(Zareva & Wolter 2012)의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L1은 개념의 덩어리 학습에서 개별 개념 학습으로 전체→세부 방향의 학습을 경험했다면 L2는 많은 경우, 세부→전체 개념으로 익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레이Wray 2002). 이처럼 L1, L2 의미망 형성은 초기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달되지만,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통합어-계열어 전환을 거치면서 구조적 유사성을 갖게 된다.

둘째, L1과 L2의 통합어 연결구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L2을 배울 때는 문법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급학습자보다는 중급학습자에게서 문법적으로 정형화된 표현이 더 자주 인출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즉, 문법적으로 안전한 표현을 택하는 것이다(자레바 & 월터 2012). 반면, L1에서는 언어수준이 더 높은 성인이 아동보다 더 정형화된 연상어(계열어, 통합어 모두)를 제시한다. 실제 L1, L2의 성인, 아동(9-12세)을 대상으로 실험한 크레머, 딩스호프, 드비어와 쇼넨(Cremer & Dingshoff & de Beer & Schoonen 2010)에서 L1 아동이 가장 다양한 범주의 연상어를 제시했다. 이는 아직 어휘의 연결이 굳어지지 않은 아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 범위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어휘를 결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L1뿐 아니라 L2에서도 언어숙련도가 최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는 계열어보다 통합어 연결구조이다. 기본적으로 L2 고급학습자와 원어민의 차이가 의미보다 문법에서 두드러지고, L2가 최고급 단계에 이르러도 문법에 대한 민감성이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사적 문법 오류를 인식하는 사건관련전위(ERP)실험에서 L2 고급학습자는 원어민에 비해 통사적 오류를 인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심지어 아동기에 L2를 습득한 이른 이중언어자(early bilingual)도 마찬가지였다(프렌크-메스트르 French-Mestre 2005: 276).

4. 통역사의 통합어 구조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의 통합어 관련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중언어자의 머릿속 사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역사의 통합어 구조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통역사가 기본적으로 이중언어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L1에 대해서는 단일언어자의 특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역활동으로 인해 특징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 구조에서는 계열어 연결이 강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통합어 연결에 비해 계열어 연결이 더 강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이중언어자와 통역사의 차이가 통합어보다는 계열어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계열어가 이해와 발화, 모두에서 통역의 핵심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이해에 있어서는 비슷한 의미의 계열어를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림으로써 원문의 언어적 형태를 희석시키며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발화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어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의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순발력 있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통합어와 통역능력의 연관성은 계열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뢰히하커(Pöschhacker 2011)에서는 통역학생이 이중언어자보다 빈칸채우기(통합어) 테스트에서 다소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입학시험의 빈칸채우기 테스트(L1) 결과와 통역수업(L2→L1) 학점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샤바스와 카더(Chabasse & Kader 2014)에서도 두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0.13, 0.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이 아니라 번역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이기는 하지만, 한국외대 번역인증팀(2016)에서도 통합적 연결능력을 보여주는 문법 항목 점수가 전체 번역점수와 0.14, -0.16의 낮은 상관관계, 혹은 역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번역능력에서 문법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³⁾ 즉, 문법의 정확성 면에서는 통역사와 이중언어자 간에 큰 차이

3) 실제 통번역연구에서 문법능력에 대한 관심은 텍스트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번역학연구>의 경우, ‘문법’이라는 검색어에 통역에 관련된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고, 번역에 대해서는 박노철(2005), 박순봉&최희섭(2009), 김정우(2013), 세

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는 통역사의 통역경험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역사의 언어숙련도가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에서 계열어가 전체적 그림그리기를 담당한다면 통합어는 표층구조의 섬세한 이해, 즉 초점 맞추기와 관련이 있다. 발화에 있어서 계열어가 순발력과 연관이 있다면 통합어는 정확성(어휘와 형태소의 적절한 결합), 혹은 적합성(연어, 관용어 등 내용어휘 간의 연결)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법의 정확성 보다 의미전달이 더 중요한 통역활동 만으로는 통합어 연결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셋째, 이상에서 보았듯이 통역사에게 있어 통합어 연결은 계열어에 비해 덜 두드러지지만 이중언어자와 통역사 간의 통합어 연결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형성의 문제이다. 성인이고 L1 모국어 화자이자 고도로 숙련된 L2 화자인 통역사는 L1에서는 정형화된 통합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L2에서는 그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3장 참조). 이러한 통합어의 정형성이라는 통역사의 특징은 통역에 자주 사용된 어휘(국제 회의 통역사의 경우, 주로 고급 시사어)일수록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집단의 통합어가 정형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 집단이 사용하는 어휘 중 관용어, 연어 비율이 높다는 것이 하나이고, 나아가 해당 집단의 사용 어휘가 질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통합어 품질의 문제이다. 같은 통합어라도 구나 절 같은 작은 언어 단위보다 문장, 텍스트 같이 문맥이 갖춰진 큰 단위에서 통역사의 통합어 인출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텍스트 단위에서 통역사가 적절한 통합어를 인출하는 능력이 비통역사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통역사의 능력이 언어능력 자체보다(의미), 텍스트 능력에 있음은 통역사 기억연구(바호 & 파딜라 & 파딜라 Bajo & Padilla & Padilla, 2000; 류 & 샬럿 & 캐롤 Liu & Schallert & Carroll, 2004; 미즈노 Mizuno 2005; 쾨페 & 시노렐리 Köpke & Signorelli, 2011)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통역사의 통합어 구조의 정리해보면 먼저 통역사와 일반 이중언어자의 차이는 통합어보다 계열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듯 통

편의 논문만이 검색되었다.

역사의 통합어 구조상의 특징은 계열어 구조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지만,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1) 통역사의 통합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형화되어 있다.
 - (2) 통역사와 비통역사의 통합어 차이는 문법보다는 의미에서 더 크다
 - (3) 통역사와 비통역사의 통합어 차이는 어구보다 텍스트 층위에서 더 크다.
- 아래에서는 이 세 명제를 가설로 삼아 실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5. 실험

5.1 실험 설계 및 피험자

본 실험에서는 통역교육기관에서 입학시험과 통역 연습으로 자주 활용되는 빈칸채우기(cloze) 테스트를 하였다. 피험자의 전공외국어가 다양했기 때문에 실험언어는 피험자의 공통 모국어인 한국어로 하였다. 즉, 이 실험은 피험자의 L1 머릿속 사전 구조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언어 단위에 따라 총 세 파트로 나누어 졌는데, 어구를 완성하는 실험, 문장을 완성하는 실험, 텍스트를 완성하는 실험이 그것이다(<표 1> 참조). 피험자는 어구, 문장을 하나씩 보고, 빈칸에 되도록 빠르게⁴⁾ 최대 5개까지의 단어를⁵⁾ 구두로 채워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표 1> 빈칸 채우기 실험자료

어 구 실 험	1. () 과일	2. 새가 ()
	3. 향수의 향기가 ()	4. () 춤다
	5. () 펼쳐진 자연	6. () 만족감
문	7. 봉사단체를 ()	8. 조건에 ()
	9. 제품이 ()	10. 행복을 ()
	1. 그는 30년을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	
	2. 국제 세미나에서 여러 나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	

- 4) 시간제한은 별도로 없었다 (각 집단이 실험에 사용한 시간은 각주 10 참조).
- 5) 텍스트의 경우, 5개까지 단어를 말하며 텍스트를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이란 지시를 내렸는데, 많은 피험자(42.86%)가 빈칸마다 1개씩의 답변만을 주었다.

장 실 험	<p>3. 파티시에에는 케이크 같은 제과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 프랑수어이다.</p> <p>4. 너의 대답 내용은 매우 진부해서 너에게 좀 더 () 답변을 원한다.</p> <p>5. 희귀종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 있다.</p> <p>6. 그 수업은 서로 다른 전공 분야 교수 3명이 () 강의하는 수업이다.</p> <p>7. 파리에도 이른바 '핫 플레이스'가 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많이 () 곳이다.</p> <p>8.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개발에 ()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 <p>9.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A씨는 회사사정이 나빠져 갑자기 () .</p> <p>10. 갑작스런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들이 불만을 () .</p>
텍 스트 실 험	<p>1. 사회적 기업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윤을 남기는 장사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경영자의 이윤을 ()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를 () 위해 재투자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국내에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이 37억여원으로 전보다 30%가량 () . 사회적기업의 성장 추세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하면 매출 규모가 ()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빈부격차의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기 시작했다.</p> <p>2. 식생활의 서구화로 각종 성인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 . 고혈압과 당뇨 등은 현대의학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생 약을 복용하여 합병증을 ()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당뇨 고혈압 발생이 나날이 증가되는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녹황색 생야채를 ()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불균형이 누적된 것이 원인이라 한다.</p>

어구 실험에 사용된 단어는 대표성을 위해 고르게 선정하였다. 단어는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빈도수 500위-5000위 사이⁶⁾의 어휘 중 빈도수를 고려하여 골고루 선정하였다(1000위 이하 3개, 1000-2000위 사이 4개, 2000-3000위 사이 3개, 4000위 이상 1개). 빈칸에 들어갈 품사와 문장성분도 다양하게 하였다. 문장 실험의 경우, 통합어의 정형성을 보기 위해 앞 단어와 결합성을 갖는 단어, 즉 연어(예: 새가 난다)를 택했고, 피험자의 텍스트 분석력을 보기 위해 앞 문

6) 통합어를 5개씩 말하라고 한 본 실험의 특징상, 통합어를 쉽고 빠르게 인출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낮은 고빈도수 어휘를 선정하였다.

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어휘(예: 진부한→참신한)를 골랐다. 텍스트 실험에서도 문장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언어와 문맥이 결정하는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단,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즉, 텍스트의 순간적 분석력이 뛰어나야 빈칸에 적절한 통합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예: [...] 당뇨 등은 현대의학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 것으로→‘으로도’라는 한정적 의미의 조사를 간과하면 ‘불가능’이라는 정답 대신 ‘가능’이라는 대답을 내기 쉬움). 문장 실험과 텍스트 실험에서는 대체로 신문에서 발췌한 시사어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통역학습/실무 경험에서 차이가 나는 세 집단을 모집했다. 통역 경험이 전혀 없는 학부생(17인), 통번역대학원생(27인), 통역경력 5년 이상의 국제회의 통역사(12인)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이중언어자였으며, 학부생(대학 독일어과 2학년)은 중급수준, 통대생과 전문가는 고급수준의 L2(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⁷⁾ 화자였다. 이들의 집단별 연령, 성별 등 집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피험자 집단

	전문가 (12인)	통대생 (27인)	학부생 (17인)
통번역학습 통번역실무	학습: 2년 실무: 5년 이상	학습: 1년	없음
연령(평균)	41.42	26.58	21.87
성별(남:여)	1:11	5:22	8:9

5.2 실험 결과 및 분석

위 실험은 4장 마지막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결과는 앞서 세운 가설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1)번 가설의 검증 결과는 따로 제시하고, (3)번 가설(통역사 통합어의 차이는 텍스트 차원에서 뚜렷하다)는 (2)번 가설을 검증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⁸⁾

7) 본 실험은 피험자의 L1 구조에 대한 연구이니 만큼, 피험자의 L2에 대한 정보는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피험자의 L1 머릿속 사전구조도 L2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본 실험의 피험자의 L2가 실험자가 모르는 언어를 포함해 7개 언어이다 보니 이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 피험자가 공통 모국어인 한국어로 단어를 제시하는 본 실험에서 L2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특이한 답변은 발견하지 못했다.

첫째, (1)번 가설, 통역사의 통역어휘에 대한 통합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정형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집단별로 피험자의 답변이 실제 언어로서 얼마나 강한 공기성(co-occurrence)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두 단어가 얼마나 함께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지를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말뭉치의 언어 빈도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 세 개 집단 내에서 개개 피험자들의 답변이 얼마나 수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집단별로 피험자 답변의 표준화 타입-토큰 비율(STTR)을 살펴보았다. STTR이 낮을수록 그 집단의 답변이 수렴되어 있고, 집단이 균질성을 갖는다.

둘째, (2)번 가설인 통역사의 통합어와 다른 집단 통합어의 차이는 문법의 정확성보다 의미, 문맥의 적합성에서 드러난다는 가설 검증한다. 이를 위해 각 집단의 답변에서 문법오류, 의미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5.2.1. 통합어의 정형성

먼저 전문가의 통합어가 실제 가장 전형적인 결합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집단별로 자극어-답변어의 통사적 결합도(공기성)을 살펴보았다. 통사적 결합도 분석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 말뭉치로 한국어 언어 빈도를 분석한 한영균(2016)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영균(2016)은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 실린 언어는 특성상 본 실험문항과 같이 문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많지 않았다. 본 실험문항 중 특별한 문맥이 없어 한영균(2016)을 그대로 참조해볼 수 있는 언어는 <표 3>의 8개였다. 먼저 각 문항의 답변을 레마 처리한 후, 상위빈도 5개의 답변을 추출하고, 한영균(2016)에서도 상위빈도 언어 3개를 추출했다. 둘을 비교하여 피험자의 답변 5개 중, 한영균(2016)의 1위 빈도 언어와 일치하는 단어는 30점, 2위 빈도 언어와 일치하는 단어는 20점, 3위 빈도 언어와 일치할 경우, 10점을 주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8) 텍스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제약이 있었다. 첫째, 답변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에 피험자별로 답변 수가 차이 나, STTR에 집단 크기를 고르게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STTR를 사용한 (1)번 가설 검증에서 텍스트 실험결과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텍스트 문맥상 제약 때문에 피험자들이 언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맥락없는 언어의 빈도수를 기록한 한영균(2016)을 항상 참조할 수는 없었다.

〈표 3〉 언어정형성(점수)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새가 ()	40	30	60
향기가 ()	50	20	50
() 춤다	30	0	30
() 펼쳐지다	20	50	20
조건에 ()	50	30	30
행복을 ()	40	10	40
위기에 ()	60	60	60
불만을 ()	40	40	60
평균	41.25	30	43.75

분석 결과,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가 아닌 학부생 답변의 언어 결합도가 한국어 말뭉치 언어빈도와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은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 집단의 차이가 미미하고 통계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표 4〉) 실험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듯 차이가 미미했던 것은 아무래도 실험언어가 세 집단의 공통 모국어였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4〉 집단별 언어정형성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F	p
	M(SD)	M(SD)	M(SD)		
언어정형성	41.25(12.46)	30(20)	43.75(15.98)	1.588	.228

* p<.05 ** p<.01 *** p<.001

ANOVA

위의 결과에 비해 보다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질문은 각 집단 내 답변의 균질성이었다. 즉, 각 집단 내에서 피험자들 간의 답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세 집단 중 어느 집단이 통합어 측면에서 집단으로서의 가장 강한 균질성을 보이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답변을 레마 처리하고 STTR을 구했다(코퍼스 툴 WordSmith의 Wordlist 기능 사용). STTR 수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단 내 답변이 수렴한다, 즉 특정 방향으로 정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표 5〉 집단별 STTR (%)

어구실험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문장실험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평균	71.8	69.4	75.1	평균	59.1	61.8	62.8

L1이 실험언어였던 본 실험에서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정형성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단어실험에서는 통대생이, 문장실험에서는 전문가가 가장 낮은 STTR, 즉, 가장 높은 정형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도 평균적으로만 볼 때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했지만, 정형성이 높은 문항 수만을 놓고 볼 때, 학부생(총 20 문항 중 3문항)에 비해 전문가(9문항)와 통대생(6문항)의 정형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기대했던 것은 전문가 통합어의 정형성이었으나, 결과는 전문가뿐 아니라 통대생의 정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별 STTR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F	p
	M(SD)	M(SD)	M(SD)		
어구	71.8(10.97)	69.4(8.44)	75.1(7.37)	.999	.391
문장	59.1(11.76)	61.8(16.64)	62.8(19.26)	.140	.970

* $p < .05$ ** $p < .01$ *** $p < .001$

ANOVA

단, <표 5>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유의미수준 $p < .05$ 기준 <표 6>)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실험이 피험자의 공통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고자 L1을 실험어로 선정했으나, 피험자마다 자극어가 달라지는 것을 감수하고자 피험자의 전공외국어(L2)로 실험을 했더라면 집단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험자에 머리에 이미 형성되어 굳어진 L1보다는 L2 머릿속 사전이 통역으로 인해 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번역 능력에 관한 다른 연구를 보면 통역학생들이 전문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강하게 통역사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작업기억 실험(친코타 & 언더우드 Chincotta & Underwood, 1998; 류 & 샬럿 & 캐롤, 2004)이나 주의력 실험(쿵케 & 네스폴러스 Köpke & Nespoulos, 2006) 등에서 통역학생들이 전문통역사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의 수주 여부에 따라 통역을 불규칙하게 하게 되는 전문통역사보다 집중

적으로 통역을 연습하는 학생들이 전형적 통역사의 특징을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다. 또 통역학생과 전문통역사는 차이가 있더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두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실험은 무엇보다 단어를 채워 넣는 실험이다. 결과의 정량화를 위해 어휘실험을 선택하였으나 통역사의 전형적인 능력은 텍스트 층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전문가의 어휘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휘를 빠르게 인출하는 실험에서는 평균 연령이 낮은 학부생과 통대생들과 큰 차이를 못 내거나 오히려 뒤쳐질 수 있다.

5.1.2. 문법의 정확성 vs 의미의 적합성

이번에는 세 집단 통합어 답변의 질적 측면을 분석해보았다. 즉, 세 집단의 통합어가 문법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의미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본 것이다. 문법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전체 답변에서 문법오류와 의미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표 7>). 문법오류와 의미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문법오류**): [...]은 북한의 핵개발에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대생) ⇨ 단호한 → 단호히
- **의미오류**: 식생활의 서구화로 성인병 환자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개선되었지만> [...] (전문가) ⇨ 개선되었지만 → 저하되었지만

<표 7> 문법, 의미 오류율 (%) (의미오류 수정 전)

	문법			의미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전문가	통대생	학부생
어구	0.33	1.05	0.69	1.08	0.49	0.46
문장	0.36	0.53	0.27	0.72	0.80	1.22
텍스트	3.51	0.54	0.19	5.84	3.74	4.51
평균	1.40	0.71	0.39	2.55	1.68	2.07

9) 사전에 없는 단어를 제시한 경우도 형태오류인 만큼 문법오류에 포함시켰다. 예) 조건에 (맞아들다), (드닐리) 펼쳐진 자연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에서 문법오류가 의미오류보다 크고, 그 차이도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져야 했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미오류가 더 컸고, 전문가의 의미-문법 오류 차이는 다른 집단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 집단차는 어느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최대 집단차는 의미-어구 항목에서 $F=1.392$, $p=.258$ 로 나타남)¹⁰⁾.

여기에서도 실험어가 모국어였던 것이 미미한 집단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집단차가 미미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미미한 차이에서 몇 가지 주의를 끌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문가 집단이 의미, 문법 오류 항목 모두에서 다른 집단보다 오류율이 높았다. 전문가 집단의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했던 본고의 기대에서 벗어난 결과였는데, 이는 아마도 전문가가 다른 집단보다 답변을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끝냈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듯하다. 실제 전문가 집단은 ‘되도록 빨리’라는 지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먼저 답변을 시작했고, 통합어를 제시하는 전체 시간도 짧았다.¹¹⁾

둘째,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가는 본인의 답변이 오류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이를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오류율도 높았지만 오류에 대한 수정율도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오류 수정률: 전문가: 4.09, 통대생: 1.63, 학부생: 0.96). 이러한 전문가의 오류수정은 통역학습과 실무에서 요구받는 순발력과 자기 수정 훈련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문통역사가 언어과제에 빠르게 반응하고 언어형태 변화에 과감하고 그만큼 자주 오류를 범하는 모습은 통역사와 비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패러프레이즈 실험에서 관찰된 바 있다(정혜연, 2016). 이렇듯 답변 제시 후 오류를 수정하는 현상이 드물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오류 수정을 거친 최종 답변만을 기준으로 오류율을 다시 계산해보았다(<표 8>). 오류수정 후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미오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문법오류보다 커서 본고의 가설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10) 집단차를 알아보기 위한 의미, 문법의 정확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각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거기에서 의미, 문법 오류율을 제하여 항목별 점수를 내었다 (예: 45개 답변 중 2개 오류: $100-2/45*100=95.55$ 점).

11) 실험에 걸린 시간은 전문가 809초, 통대생 1510초, 학부생 1695초로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짧고, 자극어를 보고 단어를 제시하기까지의 반응도 전문가가 가장 빨랐다.

<표 8> 오류수정 전과 오류수정 후의 의미-문법오류 차(%)

	의미-문법	의미-문법
	오류수정 전	오류수정 후
전문가	1.15	0.47
통대생	0.97	0.69
학부생	1.68	1.52
평균	1.27	0.89

한편, 세 번째 가설(‘통역사와 비통역사의 통합어 관련 차이는 어구 단위보다 텍스트 단위에서 더 뚜렷하다.’)을 검증하기 위해 <표 7>을 분석하였다. 각각 어구, 문장, 텍스트 실험에서 각 집단의 답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비교해본 것이다. 그 결과, 의미 항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텍스트 층위 답변 정확성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극히 미미해 의미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텍스트 보다는 오히려 어구 실험에서 집단차가 컸고(의미-어구: $F=1.392$, $p=.258$, 문법-어구: $F=600$, $p=.552$, 나머지는 이보다 높음) 전문가보다는 학부생의 정확성이 높은 편이었다. 텍스트 실험에서 전문가가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일 것이며 집단차도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기에서도 본고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6. 나가며

본 실험은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첫째, 통역사의 통합어는 다른 집단보다 정형화 되어 있다, 둘째, 통역사-비통역사의 통합어 관련 차이는 문법보다 의미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셋째, 통역사-비통역사의 통합어 관련 차이는 텍스트 차원에서 더 뚜렷할 것이다.

실험 결과 가설(1)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모든 실험결과에서 집단차가 미미했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실험이 피험자의 공통 모국어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실험은 피험자의 모국어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피험자가 통합어를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고빈도수

어휘를 자극어로 사용했다. 그러다보니 피험자의 답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의미 오류, 특히 문법오류가 매우 드물었다. 둘째, 본 실험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게(학부생, 통대생) 유리한 어휘 인출실험이었다. 그러다보니 평균 연령이 20세 가량 높았던 전문가에게 불리했던 측면이 있다. 텍스트 실험조차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빈칸에 어휘를 채워 넣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휘실험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결과는 기대와 달랐지만, 통합어 실험에서 집단차가 이렇듯 미미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다. 실제 통역능력은 거버, 룡글리, 룡과 램베르(1989), 쿠르츠(1996), 루소(2014)가 주장했듯이 통합어보다는 계열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계열어 중에서도 동의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통역능력과 동의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증명되기도 했다(루소 2014).

한편, 집단차는 미미했으나 실험결과에서 몇 가지 관심을 끌만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첫째, 전문가 집단에서 집단 내 통합어의 정형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다시 정교한 실험설계를 통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결과이다. 둘째, 본 실험에서는 전문가의 문법과 의미 정확성을 통해 통역능력을 알아보려 했으나, 전문가는 정확성보다는 순발력을 택했다. 즉, 문법과 의미의 정확성을 기해 신중하게 대답하는 대신, 빠르게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오류인 것을 깨달으면 다시 빠르게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 전체 소요시간이 가장 짧았고, 오류율과 오류 수정율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 가설을 재검증하고자 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 대신 L2를 실험어로 한다. L2의 통합어 구조는 변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단차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단, 통역의 영향을 보기 위해 피험자 집단마다 L2 언어수준의 변수는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또 원활한 통합어 인출을 위해 어느 정도 고빈도수의 어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장과 텍스트 층위에서는 빈칸채우기 과제 대신, 텍스트 산출 과제를 택하는 것이 뚜렷한 결과를 가져올 듯하다. 즉, 문장이나 텍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어휘군을 미리 주고, 그 어휘를 문장이나 텍스트로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양한 문법적, 의미적 오류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어휘를 인출하는 대신, 어휘를 조합하는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어 능력을 측정하는 본 실험의 의도에도 더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열어와 통합어를 개별적으로 실험하는 대신, 두 어휘군을 함께 측정해 비교해 보는 것도 통역사의 머릿속 사전 구조를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 (2013) 「영어 복수 표현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종합적 고찰」, 『번역학 연구』 14(4):61-90.
- 김중도 (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박노철 (2005) 「한글 킹제임스(KJV) 성경번역의 문제점: 언어/문법/문화 층들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6(2): 103-124.
- 박순봉 & 최희섭 (2009) 「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 『번역학 연구』 10(3): 99-119.
- 정혜연 (2016)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전문성의 연관성」, 『번역학연구』 17(2): 1-21.
- 한국외대 번역평가인증 연구팀 (2016) 「번역인증제도 (실무편)」, 『한국외대 통 번역연구소 학술대회 <언어, 통번역의 평가 및 인증> 발표집』, 23-33.
- 한영균 (2016) 『학습용 기본명사 언어빈도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Aitchison, Jean (2004) *Words in the Mind*(언어와 마음. 홍우평 번역). 서울: 도서출판 역락.
- Bajo, Maria Teresa & Padilla, Francisca & Padilla, Presentación (2000) Comprehension processe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Chesterman, Andrew & Gallardo-San Salvador, Natividad & Gambier, Yves (eds.) *Translation in context*. Amsterdam: John Benjamins: 127-142.
- Chabasse, Catherine & Kader, Stephanie (2014) Putting interpreting admissions exams to the test. *Interpreting* 16(1): 19-33.
- Chincotta, Dino & Underwood, Geoffrey (1998) Non temporal determinants of bilingual memory capacity: The role of long-term representations and

- fluency.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 117-130.
- Cremer, Marjolein & Dingshoff, Daphne & de Beer, Meike & Schoonen, Rob (2010) Do word associations assess word knowledge? A comparison of L1 and L2, child and adult word assoc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5(2): 187-204.
- Ervin, Susan Moore (1961) Changes with Ages in the Verbal Determinants of Word-Associ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4(3): 361-372.
- French-Mestre, Cheryl (2005) Ambiguities and Anomalies: What can eye movements and event-related potentials reveal about Second language sentence processing? Kroll, Judith F. & De Groot, Annette M.B.(eds.). *Handbook of Bilingu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68-284.
- Gerver, David & Longley, Patricia & Long, John & Lambert, Sylvie (1989) Selection Tests for Trainee Conference Interpreters. *Meta* 34(4): 724-735.
- Kandel, Eric (2009) *In Search of Memory*(기억을 찾아서. 진대호 번역). 서울: 랜덤하우스 코리아.
- Köpke, Barbara & Nespoulous, Jean-Luc (2006) Working memory performance in expert and novice interpreters. *Interpreting* 8(1): 1-23.
- Köpke, Barbara & Signorelli, Teresa M. (2011) Methodological aspects of working memory assessment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6(2): 183-197.
- Kurz, Ingrid (1996) *Simultandolmetschen als Gegenstand der interdisziplinären Forschung*. Wien: WUV-Universitätsverlag.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u Minhua & Schallert, Diane & Carroll, Patrick (2004) Working memory and expertis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6(1): 19-42.
- Meara, Paul (1996) The dimension of lexical competence. Brown, Gillian & Malmkjaer, Kirsten & Williams, John (eds.). *Competence and performance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5-53.
- Mizuno, Akira (2005) Process Model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 Working Memory, *Meta* 50(2): 739-752.
- Namei, Shidrokh (2004) Bilingual lexical development: A Persian-Swedish word associ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4(3): 363-388.
- Nissen, Henriette & Henriksen, Birgit (2006) Word class influence on word association test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6(3): 389-408.
- Pavlenko, Aneta (2009) *The Bilingual Mental Lexico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Bristol, Buffalo,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 Pöschhacker, Franz (2011) Assessing aptitude for interpreting - The SynCloze test. *Interpreting* 13(1): 106-120.
- Russo, Mariachiara (2014) Testing aptitude for interpreting. *Interpreting* 16(1): 1-18.
- Saussure, Ferdinand (2010)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번역). 서울: 민음사.
- Wray, Alison (2002) *Formulaic languag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reva, Alla & Wolter, Brent (2012) The ‘promise’ of three methods of word association analysis to L2 lexical research. *Second Language Research* 28(1): 41-67.

[Abstract]

Syntagma in professional interpreters' mental lexicon

Chung, Hye-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on syntagma in interpreters' mental lexicon: 1) Interpreters' syntagmatic connections of words are stronger and more typical than non-interpreters, 2) Interpreters' competence in syntagma lies more in the semantic adequacy than in the grammatical accuracy, 3) Their competence in syntagma is more visible on a textual level. 12 expert interpreters, 27 interpreter trainees, 17 undergraduates were subjected to three sets of cloze test (phrase, sentence, text). It was expected that experts produce more typical and semantically correct answers, especially on a textual level. As a result, only first hypothesis was partly confirmed and the group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is result(minor group difference) can be ascribed to the experiment language (subjects' mother tongue in common) and the modality of the test, i.e. lexical test, which is favorable for younger groups.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interpreters and non-interpreters in their mental lexicon lies more in paradigmatic than in syntagmatic structure.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subsequent researches on syntagmatic structure of mental lexicon.

▶ Key Words: syntagmatic, paradigmatic, mental lexicon, interpreter, bilingual

정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부교수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